“굳건한 안보”

2017년 정부 업무보고

2017. 1. 4.(수)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통일부
외교부
국가보훈처

순 서

□ 국 방 부

□ 통 일 부

□ 외 교 부

□ 국 가 보 훈 처

외 교 부

전환기 국제정세下 능동적 한국 외교

Ⅰ. 지 난 4 년 간 성 과

Ⅱ. 전환기 국제정세의 도전과 기회요인

Ⅲ. 2017년 핵심 외교과제 및 추진계획

Ⅳ. 맺 음 말

I 지난 4년간 성과

북핵 대응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대북제재·압박 국제 공조체제 구축** **- 3개축 : 안보리 결의, 주요국 독자제재, 글로벌 외교 압박** **북한 인권 공론화 및 대북 인권 압박 가중**
주변국 외교	**美: 주요현안**(원자력·전작권·방위비) **해결, 고위급 협의 제도화**(북한·원자력·경제·확장억제 등) **中: 사드 등 도전 불구 북핵 협력 견인, 빈번한 정상 및 고위급 대화, FTA 발효, 방공식별구역 확대·조정** **日: 과거사 관련 국제 공조, 일본군위안부 문제 타결**(15.12월), **GSOMIA 체결**(16.11월) **러: 대러제재下 한-러관계 안정적 발전, 북핵 협조, 극동 개발 협력** **韓日中 3국 협력 복원: 3년 반만에 정상회의 개최**(15.11월)
지역/ 소다자 외교	**동남아: 주요 친북 국가와의 정상급 교류 확대, 탈북자 안전 이송체제 구축** **아중동: 이란·阿 3개국 정상 순방**(16.5월) **등 미래 경제 성장 동력 확충, 친북 국가 친한화** **중남미: 한-쿠바 관계 개선 기반 조성, 對중남미 FTA 네트워크 확충** **유럽: 한-EU간 3대 핵심협정 체결 등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 빈번한 정상외교 및 전략대화** **소다자: MIKTA 창설 및 다양한 대화체제 수립(CELAC, V4, 노르딕, GCC, 아랍연맹 등)**
글로벌 다자외교	**역대 최대의 다자외교 리더십 발휘** (유엔 3대 이사회 의장직, 16년 10개 의장직, IMO 사무총장) **글로벌 실질 기여 확대** (남수단 PKO 파병, ODA 증액, 인도적 지원 확대 등)
경제외교	**해외진출 기업 활동 지원, 경제협력 네트워크 확대**(장기 난제였던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7개 FTA 발효, 45개 경제협정 체결 등), **친기업 글로벌 환경 조성**(G20, APEC, OECD)
재외국민 보호	**IT 활용 재외국민보호**(국가별 맞춤형 SMS 서비스), **사건사고 능동 대응**(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재외공관 테러전담 인력 증원), **해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Ⅱ 전환기 국제정세의 도전과 기회요인

□ 도전 요인 :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환경

○ (한반도)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 北 전략적 도발 감행 가능성 및 핵무장화 근접
-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압박 점증

○ (동북아) 역내 역학관계 재편 진행
-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아시아정책 변화 가능성
- 통상문제,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 가능성
- 미·러관계 재설정 시도, 일본의 대러접근 등

○ (글로벌) 자유주의 국제질서 퇴조
- 중동·아프리카 역내 ISIL 발호, 테러리즘의 확대, 내전·난민 증가
- 브렉시트 협상 개시 및 보호무역주의·통상 마찰 우려 고조

□ 기회 요인

○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 및 대북 압박 공조 강화

○ 미·러관계 회복시 한·러관계 발전 기회 확대

Ⅲ 2017년 핵심 외교과제 및 추진계획

1.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
2.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3.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4.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5.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
6.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

1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

□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틀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전방위 외교적 압박	북한의 취약분야 집중 공략		군사적 억제
○ **북한 자금줄 차단** • (석탄 수출 상한제 및 추가광물 교역금지(8억불 차단) / 공관 불법 임대 차단 / 해운·금융 통제 등) ○ **외교적 고립 심화** • 공관 축소 / 교류·협력 중단 ○ **주요국 독자제재 조율**(한·미·일 등) • 추가제재 견인 (EU·호주 등)	○ **북한 인권 압박 가중** • 김정은 책임 규명 공론화 • 해외노동자 문제 집중 부각 ○ **대북 정보유입 강화** • 정보유입 방식 다변화 • 컨텐츠 업그레이드 • BBC 대북방송 개시 예정	✚	확장억제 관련 한·미간 협력 강화 (EDSCG 등)

추진방안	○ (對美) 美 신행정부·의회와 기존 대북압박 기조 유지·발전 위한 공조 ○ (6자회담틀下) 한·미·일 3각 공조 / 중·러와 양자차원의 전략적 소통 증진 / 소다자·5자 협력 활성화(한·일·중 / 한·미·중 등) ○ (국제사회) EU·NATO와의 협력 강화 / 호주·동남아 등을 통한 對 중·러 견인 병행

□ 미 행정부 교체기 북한 책동 가능성에 대한 공조 강화

○ 상반기중 北 추가도발 가능성

• 과거 미 행정부 교체기 北 도발 전례, 北 신년사 최초로 ICBM 관련 언급(1.1), 북한 관련 주요 계기일 집중 등

⇒ 한미간 강력한 경고 메시지 발신, 안보리 및 주요국 차원의 단호한 징벌적 조치 사전 조율

○ 한편, 北 기만적 대화 공세시, '의미있는 비핵화 최우선' 원칙 견지下 대응 (CVID 비핵화 목표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

□ 우리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전략적 소통 및 국제적 지지 확산

○ 북한의 변화 유도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 가속화, 주요 우방국들과의 정책 경험 공유 심화

* 한 · 독 통일외교정책자문회의(1월),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 대화, 한반도클럽 · 평화클럽 등 활용

2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 미국 : 신행정부下 역대 최상의 한미동맹 지속 발전

도전 요인 대응 방안

- ■ 북핵/북한 : 현 행정부와 마무리 협의 및 신행정부 대상 아웃리치
- ■ 한미동맹 : 연합방위태세 유지 · 강화, 현안 소통 · 공조
  - ·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위비분담 · 동맹 호혜성 인식 제고, 사드 등 민감 현안 긴밀 협의
- ■ 경제 · 통상 :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 공감대 확산

고위급 전략 공조 강화

- ■ 고위급 회담 적극 추진
  - · 양자 및 다자 회의 계기
  - · 1/4분기 중 외교장관 등 유관부서 장관
- ■ 고위급 실무 협의채널 신행정부에서도 지속
  - · 북한/원자력/경제/확장억제

■ 신행정부 견인을 위한 속도감 있는 공공외교

- 의회 · 싱크탱크 · 언론 대상, 대미 투자기업 활용

⇨ **신행정부下 최상·최강의 한미동맹 지속 발전**

□ 한·일·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

	중국	한 · 일 · 중	일본
대중 대일 외교 환경	• 한 · 중 수교 25주년 •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예상 •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 제19차 공산당대회	• 정상회의 시기 미합의 – 일 · 중간 갈등 지속 •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	• 과거사 관련 부담 요인 • 인적교류 증가 및 상호인식 개선, GSOMIA 체결 등 긍정요인
추진 방안	• 북핵 · 북한 관련 공조 지속 • 양국 관계의 대국 유지 노력 • 중국측 사드 반발 관련 유관 부처 협업을 통한 대응 및 피해 최소화 •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측 적극 조치 요구 * 공용화기 사용 등 단호 대처	⇔ • 정상회의 조기 개최 협의 지속 • 양자관계 발전과 선순환 구축 • 3국협력 리더십 확보 • 3국협력 제도화 추진 * 장관급(21개) 포함 68개 협의체 활성화, 3국협력사무국(TCS) 역량 강화, 3국 청년 네트워크 사업 등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충실 이행 * 합의 당시 기준 생존 피해자 46명 중 34명 재단 사업 수용 의사 표명 • 고위급 소통 등 차질없는 외교 일정 실시 • 북핵 · 북한 문제 관련 전략적 공조 지속 • 경제 · 인적교류 및 대일 공공외교 강화 • 과거사 등 역사문제 단호 대응

□ 러시아 :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발전

대러 외교 환경

- ○ 트럼프 미 신행정부下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
- ○ 중·러간 공조강화 추세, 일·러간 대화 동향

- ○ 16.9월 정상 동방경제포럼 참석 성과로 극동개발 실질협력 기반 확대
- ○ 고위급 협의채널 활성화 및 민간 협력채널 적극 가동
  * 경제공동위(부총리), 전략대화(외교차관), 정책협의회(외교차관보), 한-러 대화 등
- ○ 대러 정책공공외교를 통한 우호협력·신뢰 증진
- ○ 북한 비핵화 관련 러측의 보다 건설적인 역할 유도

□ 장기적 평화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구상 추진

- ○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여건 악화에도 불구,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 추진
  * 정부간 협의회(Track 1) 정례화 및 참여국 內 순환개최 (16년 최초 해외 개최)
- ○ [유라시아 구상]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유라시아 구상의 가속화
  * 한·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FTA 추진,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 한·중앙아 5개국 상설 협력 사무국 설립(7월, 서울)

□ 주요 지역외교 역점 분야

○ G20 외교장관회의(2.16-17), 뮌헨안보회의(2.17-19) 등 계기 북핵외교 및 글로벌 기여 증대

○ MIKTA 외교장관회의(2월, 9월 등), 한-V4 외교장관회의(하반기) 등 소다자 네트워크 지속 강화

○ 제8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 36개국) 외교장관회의 주최(상반기)

○ 한·쿠바 관계개선 가속화 : 고위급 인사교류, 기업인 사절단 파견, 개발경험공유 확대 등

○ ASEAN 창설 50주년을 맞아 ASEAN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 호주·인도와 외교·국방(2+2) 협력 등 아·태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 고려인 중앙아 정주 80주년 기념사업(우즈벡 타슈켄트 소재 '한국 문화예술의 집' 개관 등)

○ 신지도부 출범 예상 유럽 주요국(佛·獨 등)과의 고위급 협의 적극 가동

3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유엔가입 4반세기만에 다자외교 전성기 구가

○ 글로벌 어젠다 설정을 주도하는 "Korean Leadership" 구축

- (이사국·의장국 수임) 안보리, ECOSOC, 인권이사회 등 유엔 3대 기관 및 핵안보각료회의 등 13개 기구
- (국제기구 수장 배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 (국제재판관 배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 (한국인 국제기구 진출 확대) 458명(12년) ⇨ 571명(16년)
- (주요 국제회의 개최)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ITU 총회, 세계교육포럼, 세계물포럼 등
- (정상급 다자회의 참여 확대) 유엔총회, 기후변화/평화유지/개발정상회의,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등

○ 국제 평화 및 개발 실질기여

- (PKO 기여) 남수단 한빛부대 파병(13년), 말리 PKO 의료시설 설치(16-17년)
- (ODA 확대) 1조 9천억원(12년) ⇨ 2조 4천억원(16년)
- (인도주의 외교) 난민 지원 350만불(12년) ⇨ 5,129만불(16년) 약 15배 확대

국력에 상응하는 글로벌 기여 지속 강화

□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다자외교 강화

평화 · 안보	인권증진 · 인도주의	개발협력 · 기후변화
• 평화구축위원회(PBC) 의장국 신규 수임 • (PKO) 말리 PKO 의료시설 설치 완료, 우리 ICT 기술 PKO 제공 ⇒ 추가 기여방안 검토 • (WMD 비확산) 원자력공급국 그룹(NSG)/미사일기술통제 체제(MTCR) 의장국 수임 ⇒ 비확산체제 어젠다 설정 주도 • (테러/사이버 안보) 한-OSCE 사이버 안보 회의, 한-유엔 테러리스트 ICT 접근 대응 회의 등	• (인권) 유엔 인권이사회, UN Women, 여성지위위원회(CSW) 이사국 수임 • (인도주의 외교)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16.5월) 및 난민정상회의(16.9월) 공약사항 이행 (16-18년간 2.3억불 지원 등) ⇒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대표적 브랜드화 지속	• (개발협력)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기여를 위한 개발협력구상 이행 -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농촌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기후변화) 파리협정 후속협상 적극 참여, 유사입장국가들과 협의채널 구축, GGGI와 GCF 유치국으로서 활동 지원

4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경제외교 환경

- ○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우려
- ○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시장 불확실성
- ○ 중국의 우리기업 규제 및 비관세장벽 강화
- ○ 전세계 경제 및 무역성장 둔화 추세

□ 보호무역 가능성 대응을 위한 경제외교 강화

○ 美 신행정부의 보호무역 가능성에 대비한 대미 아웃리치 전개

•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 홍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1월) 등 협의체 가동

○ 중국의 우리기업 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조체제 강화

• 양자·다자 / 공식·비공식 채널을 활용, 문제제기와 설득 노력 병행

○ 전세계적 수입규제조치 증대에 대한 대응 강화

• 수입규제대응반을 중심으로 본부-공관-기업 협업체제 강화
(최근 2년간 43건 수입규제조치 대응 결과, 총 5.3억불 관세절감)

○ 브렉시트 협상 개시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2월), 한·영 Trade Working Group(2월) 등 활용

□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 활동 지원

○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국 인프라 시장 유망사업 발굴 및 수주 지원

- 수주 유망지역 27개 공관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 협의체' 운영 활성화
  (최근 2년간 재외공관의 우리 기업 수주 지원 실적 : 약 130억불)

○ 우리 기업의 新성장 분야(원전·에너지·물·환경·보건의료 등) 해외진출 지원

○ 신흥시장 국가와의 경제협정(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체결 가속화

○ 기업 애로사항 해소(미수금 해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지원

- 양자 경제공동위(16년중 18개국과 개최) 등 경제협의 채널을 통해 경제현안의 안정적 관리

□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글로벌 경제환경 조성

○ G20, APEC, OECD 등에서 성장전략, 보호무역주의 대응, 무역·투자 자유화 등 의제 선도

- G20 정상회의(7.7-8, 함부르크), APEC 정상회의(11.10-11, 다낭)

○ 다보스포럼(1월), 보아오포럼(3월) 등 국제적인 민간 포럼을 활용 우리 경제정책 홍보

○ 우리 기업의 북극항로 활용 및 북극지역 자원개발 참여 기반 조성

- 북극이사회 옵서버 참여활동 강화, 북극경제이사회 회의 한국 유치 추진

5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

재외국민 보호 환경 : 2천만 해외여행객 시대 개막

○ 테러, 분쟁, 지진, 전염병 등 재외국민 안전위협 증가

＊니스, 이스탄불, 베를린 등 주요 테러만 20여 건 발생



□ 해외 테러·범죄 대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최적화

○ 테러·재난 등 위험지역 SMS 안전공지 및 여행경보 적시 발령

○ 해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홍보 확대 및 영사실무교육 대폭 강화

＊KBS World, YTN, 지하철 광고

○ 영사콜센터 해외 연락두절자 안전 및 소재 확인 체제 24시간 가동

○ 필리핀 등 해외 안전 취약국 내 우리국민 보호 노력 강화

○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관련 국제협력 강화

□ 영사분야 편익 증진 및 대국민 영사서비스 제도 개선

○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워킹홀리데이협정 체결 확대 등(21개국, 3만8천여명)

○ 기존의 전자여권 외 점자여권 도입 등 여권업무 선진화 추진

○ 세계영사포럼(GCF) 사이버 사무국 설립 등 다자 영사외교 선도

6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

□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공공외교 강화

○ 美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각 계층 대상 對美 공공외교 강화

○ 한·중 수교 25주년 등을 감안한 對中 공공외교 전개

○ 북핵 대응 및 주요 외교사안 관련, 미·중·일·러 등 전략지역 대상 맞춤형 공공외교 추진

□ 매력 한국 이미지를 활용한 지식·문화공공외교 추진

○ 주요국과의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한·일·중 공공외교포럼 한국 개최 등)

○ 문화권·지역별 현지 맞춤형 한국 매력(한류) 전파 및 한국 바로 알리기 노력 경주

○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스포츠 공공외교 강화, 유네스코·세계관광기구 등과의 교육·문화·관광분야 국제협력 증진 및 사무국 진출

○ 민간, 지자체 등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 공공외교 5개년(2017-2021) 기본계획 수립

Ⅳ 맺음말

권한대행 정부시무식 신년인사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강력히 대응”
“외교에는 조금의 공백도 없이 노력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확대”

외교부는 국익수호의 최전선에 있다는 자세로
국제질서의 전환기, 불확실성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시기에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미진함을 함께 돌이켜 보면서
다가오는 커다란 도전들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